

對比언어학과 번역학

박 용 삼*

目 次

- | | |
|-----------------------|--------------------|
| I. 서 論 | 3.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의 관계 |
| 1. 대비언어학에 대한 비평과 옹호 | 4. 대비분석을 통한 번역의 실제 |
| 2. 대비언어학의 한계극복을 위한 시도 | II. 결 論 |

I. 서 論

본 논문은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이라는 두 가지 언어학의 분과를 대립시켜 상호긴밀한 관계를 찾아 내어 두 분야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소위 목표어(Zielsprache)에 이르는 여러가지 이론과 방법론을 토론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까지의 대비언어학의 잘못된 방법론의 수정을 통한 번역이론의 보완에 있다. 그 때문에 대비언어학의 서술과정에서는 주로 지금까지의 주목할 만한 이론들과 비평이 다루어질 것이며, 보완되고 수정된 방법론이 번역과정에 도입되어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러가지 가능한 언어들을 "tertium comparationis"로서 대비하며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또한 대비언어학이 목표로 삼고있는 두 개 이상의 언어 체계들의 비교를 통해서 이들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언어의 여러가지 차원에서 기술하여 외국어 수입과 습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지 하는 대로 언어들을 서로 비교하는 생각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특히 18세기와 19세기에 독일에서 비교언어학(Komparativistik)에서 그 절정을 맞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취급된 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이나 목적은 위에서 언급된 대비언어학(Kontrastive Linguistik)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비교언어학은 현저하게 역사적으로 방향이 설정되었고 비교언어학의 주된 관심은 유형론(Typologie)과 상이한 언어들사이의 언어적인 비교를 토대로해서 원시친족성을 재구성하고 또 그것들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해서 비교된 언어들 공통성을 찾아 언어를 재구조(Rekonstruktion)하는 것이었다. H.L. Kufner는 독일어와 영어의 음운론 대비연구의 서문에서 "여러가지 언어의 역사적 발달과 그들의 가능한 상호

* 人文大學 獨語獨文學科 教授

친족관계를 안다는 것이 지식인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역사적인 관계의 지식은 실제의 수업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의미밖에는 갖지 못하였다.”¹⁾고 했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 분석의 중점은 음운론(Phonologie) 내지 음성학(Phonetik), 형태론(Morphologie)과 어휘(Lexis)에 두었으며, 반면에 문장론(Syntax)에는 비중을 적게 두었다. 더 나가서 이러한 통사적인 비교연구에서는 흔히 체계적이고 특히 구조주의적인 발단이 결여되고 있는 데, 그것은 어떤 명시적인 문법모델(Grammatikmodell)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언어사(Sprachgeschichte)의 영역에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대비언어학(Kontrastive Linguistik, 라틴어 “contra”, 반대하여; 라틴어 “stare”, 서있다) 또는 대비문법(Kontrastive Grammatik)은 비교언어학적 기술방법론과 분석방법론인데, 이의 중요한 관심과 과제는 가능한 세부적인 비교를 할 때 비교된 두 언어나 그 이상의 언어체계내지 하위체계사이의 공통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차이점 혹은 대비(kontrat)에 있다.²⁾ 또 K.H. Wagner는 대비언어학의 과제를 “두 개 이상의 언어들에 대한 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이 언어들 간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모든 언어적인 차원들, 즉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 등에서 기술하는 것”³⁾이라고 하면서, “대비언어학의 가장 까다로운 이론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가 비교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상들은 비교의 토대로서 쓰일 수 있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만 대비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각각의 모든 비교의 토대가 되는 것이야 말로 공통성이다”⁴⁾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E. Coseriu에 의하면 이러한 비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비문법의 성능과 한계에 대해서”⁵⁾라는 논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대비언어학에 대한 비평은 무엇보다 특히 언어를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데서 시작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들 사이의 사고내용을 동일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므로 통례적인 대비문법은 이론적이라기 보다는 실제적이다. 다시말하면, 외국어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해당하는 모국어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대비언어학은 독점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E. Coseriu는 보고 있다: “언어 B(배워져야 하는 언어, ‘목표어’)에서 무엇이 언어 A(‘출발어’ 내지 모국어)의 X라는 영역에 대치하는가 그리고 그 역은 무엇인가? 이며 다시 실제적인 목적에서 (출발어에서 보아서 목표어에 고대하는

1. Herbert L. Kufner. Kontrastive Phonologie Deutsch-Englisch.

Stuttgart 1971. 한국어 번역판: 임환재 옮김. 대비음운론-독어와 영어를 중심으로-서울 1987. S. 1

2. K. Rein, Einführung in die kontrastive Linguistik, Darmstadt 1983. S. 1.

3. K. H. Wagner, “Probleme der kontrastiven Sprachwissenschaft” in: Sprache im technischen Zeitalter, 32. 1966. S. 306.

4. K. H. Wagner, “Kontrastive Linguistik”, in: H. L. Arnold/V. Sinemus, Hrsg., Grundzüge der Literatur- und Sprachwissenschaft, Bd. 2: Sprachwissenschaft, München 1974, S. 375.

5. E. Coseriu, “Über Leistung und Grenzen der kontrastiven Linguistik” In: Reader zur kontrastiven Linguistik. Frankfurt/M. 1972. S. 39~58.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 전형적인 질문은 “무엇이 두 언어에서 일치하지 않는가?”이다.⁶⁾ E. Coseriu의 이제까지의 대비문법의 부정적인 양상들의 강조를 통한 이 문법의 긍정적인 실행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논거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G. Nickel도 “두 언어의 체계를 동일한 문법모델에 따라 완벽하게 기술하기란 존재하지 않는다.”⁷⁾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한 언어의 기술은 한 언어내에서도 존재하는 법이 없다.

또 다른 문제로서 대비언어학이 여전히 특유의 목적설정 내지 특정한 실행 즉 외국어수업(Fremdsprachenunterricht)의 실재에 대한 요구아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대비언어학의 성과가 교수법상으로 전달되어야함은 물론 그들의 문제설정과 해결 역시 외국어수업의 실재적인 문제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 스스로가 대비기술(Kontrastive Beschreibung)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교사나 교재의 저자라도 이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비분석을 토대로하여 기술되고 설명되고 긍정적 전이 내지 부정적 전이라는 현상들이 실제로 외국어를 습득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항상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목적을 정할 때, 대비언어학은 결국 오류분석(Fehleranalyse)으로 축소되거나 오류분석과 동일시 될 것이다.

1. 대비언어학에 대한 비평과 옹호

앞에서 누차 언급된대로 대비언어학은 실제적인 목적에서 시작하여 이제 다시 학문적인 정립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理論言語學과 인접관련 학문에 접근하여 학문적인 토대를 이룰려고 시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론적인 토대정립에 고심하게되고 동시에 여러가지 논쟁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대비언어학에 대한 중요한 비평은 무엇보다 특히 언어상호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동시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 나가서 언어들 사이의 思考內容(Denkinhalt)을 동일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더 나가서 언어들 사이의 등가문제가 비평의 대상이 되는 데, 이것은 “翻譯等價”라는 문제와 결부되어지며, 이 문제는 특히 번역을 위한 대비언어학의 접근으로도 보아진다.⁸⁾

언어학 측면으로 부터 대비언어학에 대한 비판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오랜 역사를 가지기는 했으나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언어학의 대상에 대해서 구속력있는 이론을 정립하고 그 이론의 모형을 만들어 위치를 굳히고 있는 현대 언어학의 입장에서 볼 때 순수한 실제의 측면에서 출발하여 여전히 실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짧은 역사의 대비언어학은 많은 이론언어학적인 허점을 드러내어 공격의

6. E. Coseriu, Ebenda, S. 39.

7. G. Nickel, “Kontrastive Linguistik”, in: H. L. Arnold/V. Sinemus, Hrsg.,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Tübingen, 1973.

8. 이 점에 관해서 W. Koller가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한국어판: 박용삼 옮김,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에서(S. 240이하)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대상이 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ado는 대비언어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더우기 어떤 새로운 분과가 아니라, 단지 지금까지의 언어학의 결과들을 외국어수업의 실제에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시종 일관되게 응용하는 것”⁹⁾이라고 했다. Lado의 이 짙막한 언급은 대비언어학이 독립된 언어학의 한 분과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거나 사실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론언어학에 굳게 기초를 두고 있는 확실한 응용언어학으로서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E Coseriu도 Mannheim대학에서 행한 그의 유명한 연구강연의 서두에서 통상적인 대비문법의 약점과 불충분성들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대비문법의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을 통하여 이제까지 이 문법의 통례적인 실제에서 되어진 것 보다 날카롭게 경계를 지으며 이 문법의 본래의 의미를 좀더 자세히 규정하고 이 문법의 긍정적인 실행가능성을 확립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K. Rein은 Coseriu 자신도 역시 비교과정의 관점으로서 공통된 의미내용을 의미-화용상으로 구별해 보는 것 만을 인정하고 실제(Praxis)에서 화용론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대비적인 문화비교로 확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¹⁰⁾ 그는 구조주의 문법기술에 의해서 전적으로 고유의 대비문법을, 예컨대 협정된 문법이나 또는 의존문법같은 여타의 기술문법모델 가운데 어느 하나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그가 오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며 그러한 가정을 하기 때문에 대비문법이 모든것을, 특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잘못된 해답을 얻게될 것이라고 했다. 또 대비문법은 연관성이 없는데, 그 이유는 언어실제에서도 “무상응”(Nullentsprechung) 내지 재분배(Umverteilung) 및 상응의 변화 등이 또 다른 층위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나 이들 현상에는 어떤 적당한 대응방안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유사한 가정도 Coseriu가 오해한 대목이라고 했다. Rein은 오늘날의 문법모형들 내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 개별언어상으로 매우 상이한 형태론적인 표현가능성들이 현실평가의 변형으로 제시되는 데, 이러한 진술의 변형은 문법적인 통사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독일어에서도 이 문법적인 통사구조로 표현된다고 하면서 그 보기로서 다른 Modus의 선택, 즉 er komme/ka'me(직설법대신 접속법을 선택) 혹은 동사의 변형, 즉 sie vermutet, daß er kommt(다른 동사를 사용) 또는 wohl, zwar, kaum 등을 보여주고 있다.¹¹⁾ Rein은 계속해서 현실평가에 있어서 동일한 단계들이 영어에서 우선 원리적으로 독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사적으로 달리 형성된 Modus의 선택에 의해서 수행되나 이와는 달리 변형(Modifikation)은 비언어적 내지는 超分節音素로 표현되는 일이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 있다(예. 억양의 까다로운 변화, “doesn't she?”같은 유형의 공식적인 부가의문문을 통한). 그런데 이러한 것은 독일어에서 직접적인 상응이 없다. 그러나 언어층위들을 지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일반적인 하나의 생산과정으로서 언어변형의 干涉的인 構想을 가지는 변형생성문법은 상기의

9. R.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Michigan 1957.(재인용).

10. K. Rein, a. a. O., S. 20.

11. K. Rein, a. a. O. S. 19.

현상들을 解明하는데 가장 먼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Coseriu는 변형생성문법의 위상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Coseriu는 “실제의 고유가치”를 類似性和 相異性으로부터 얻은 “통일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일반적 통찰”속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거의 제기된 일이 없다는 비난을 변형생성문법에 하고 있다. 요약해서 Rein은 Coseriu가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일반언어학적으로 체계에 방향을 맞춘 대비언어학의 구성성분들을 특히 강조하며 또한 그는 아마도 매우 튼튼하게 기초가 닦이고 광범위하게 일치하지 않을 지라도 변형생성문법이 지금까지 이미 언어유행론에 의하여 다루어져 왔던 것처럼 종래의 공시비교학(synchrone Komparatistik)이라는 방향에서 새로운 분과학문의 가능성과 과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¹²⁾

2. 대비언어학의 한계극복을 위한 시도

앞장에서는 대비언어학의 비판으로서 받아드려진 E. Coseriu의 몇가지 관점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의 연구강연의 처음에서 밝힌 대로 이제까지의 대비언어학의 경계를 확실히 그으면서 자신의 제안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그의 논문을 중심으로 그가 펼치고 있는 이론을 상론하려고 한다. 그는 로만스어로부터 많은 보기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독일어의 보기를 끌어들이고 그의 언어들의 보기들이 때에 따라서 언급되어질 것이다.

E. Coseriu는 자신있게 이제까지 실행되고 있는 대비문법과 이 문법의 토대, 과제, 가능성을 더 부여하고 있는 자신의 대비문법사이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통례적인 대비문법은 외국어수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더우기 때에 따른 모국어에서 출발하고 있는 “잘 알려진 말로 해서 실제적(praktisch)”인 것이다. “언어B(배워져야하는 언어, ‘목표어’)에서 무엇이 언어A(‘출발어’ 내지 모국어)의 X라는 영역에 대해서 있는가 그리고 그 역은 무엇인가?” 또 두 언어의 X₁과 X₂라는 상응하는 영역이 유추적으로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는 경우들을 고려해서 “무엇이 두 언어에서 일치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중간언어적인 대비(Kontrast)를 연구한다. 이에 대해서 K. Rein은 “두 언어에서 무엇이 일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대비라고 하는 발단 전체를 축소시키는 것은 물론 그 대상이나 그 대상과 더불어 파악되는 저자들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옹호를 하고 있다.¹³⁾ 그러나 E. Coseriu가 옳게 보고 있듯이, 대조학의 과제로 삼았던 대상영역의 확장으로부터 문제점들이 시작한다. 그러므로 X₁과 X₂의 영역이 도대체 실제적인 관점에서 상응하며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두 언어를 위해서 어떤 동일한 제3의 비교를 취할것을 언급한다. 이 것은 모든 비교에서 이미 관련된 가정된 사항의 동질성/비동질성을 밝혀주는 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통례적인 대비문법에서도 명백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문장에서 “생각되어진

12. K. Rein. a. a. O. S. 21.

13. K. Rein. a. a. O. S. 17.

것”(Gemeintes)을 거론하고 있으나 “확실한 관념의 일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있다. 그러므로 “어떤 비유추적인 언어수단을 가지고 언어A와 언어B의 문장들이 동일한 사고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가?” 혹은 더 쉽게 표현해서 “언어A와 언어B의 비 유추적으로 형성된 동일한 것을 말하는 것, 즉 동일한 언어외적 사태를 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통례적인 대비문법의 질문에 대해서 E. Coseriu는 다른 표현을 사용한다: 즉, “어떻게 해서>동일한 것<이 언어 B에서 말해지는가?”가 아니라 “어떤 유사한 상황가운데서 내지는 동일한 사태에 관해서 언어B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말해지는가?”이다. 이 질문은 바로 대비문법의 실제와 번역실제에서 나타난다.

E. Coseriu는 오늘날의 연구상태에서 사람들은 다만 원리적으로 사고내용의 두 가지 층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세계의 일차적인 형상으로서 그때 그때의 개별어와 연관을 가지는 층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언어적으로 형성된 세계에 대한 때에 따른 개별어와 함께하는 말하기(Sprechen)에 속하는 층위라고 했다. 개별어로 부터 분리할 수 없는 사고내용들은 첫번째 층위에 속하고, 반대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층위에 속한다. 결국 이 두 층위는 문장의미 내지 문법적의미와 어휘적의미의 두 영역에 상응시키고 있다. 여기서 그의 보기를 들면, Das gefällt mir, I like this, Cela me plaît – J'aime cela와 같은 문장들은 동일한 사고내용을 포함하나 그 사고내용은 gefallen, to like, plaire 내지 aimer에 대해서 유효하지 않다. 또 사고내용이 그때 그때의 언어에서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있는 데, 예를들면 독일어 schwarz라는 더욱 일반적인 내용에 ‘빛나는’, ‘빛나지 않는’이라는 부가적인 규정을 삽입할 수 있으며 그래서 라틴어 niger 내지 ater의 내용을 표현한다. 그 반대는 안된다. 라틴어에서는 빛에 관계하지 않는 단순한 >schwarz<로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며, 어떤 언어에서 어떤 특수한 구별을 해야만 한다면, 그 구별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Coseriu의 비평의 초점은 적용되어야 하는 문법이론에 대한 문제이다. 그것이 전통적 문법이거나 구조적 문법이거나 혹은 변형적 기술문법이거나 이들이 충분히 명시적이라면 이들이 원리적으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동의하지만, 이러한 방향이 언어의 파라디그마적인 축(paradigmatische Achse) – 다시 말해서 기능단위를, 사용가능성, 언어형식 등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 – 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배척하며 오늘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변형생성문법의 비판을 지지하고 있다. 통상적인 대비문법에서는 문법적인 계층, 문법의 영역들, 문법적인 말하기 技術에서 구조화의 면들이 충분치 못하게 구별되며, 이것은 실제적인 관점에서 언어체계와 언어규범사이의 구별에도 해당된다. 대비문법은 우선대비(두 언어에서 동일하거나 대략 동일한 그것이 말하자면 대비적인 관점에서는 흥미가 없다)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불충분하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그때의 개별언어내에서 대비하는 현상과 대비하지 않는 현상사이에서 연관들이 대부분 고려되지 않은 채 머물러야 한다. 동시에 대비문법은 그 문법의 실제적인 목표설정과 목계적으로 인수된 tertium comparationis 때문에 필수적으로 문법으로서의 일관성이 없다. 이 문법은 한편으로 “무상용”(Nullentsprechung)을 고려해야하며(언어 A를 가지고 하는 말하기에서 X라는 어떤 현상에 언어 B를 가지고 하는

말하기에서 단순히 아무것도 상응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이 문법은 어떤 언어를 문법적으로 형성된 사실들과 비교하여 다른 언어에서 언어현상(어휘 혹은 심지어 음운론)의 다른 영역에서 상응들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remarque*라는 불어의 삽입구에는 대부분의 경우 독일어에는 상응이 없다.(때때로 *Wissen Sie* 혹은 이와 유사한 것일 것이다). 또 독일어의 불변사들(*zwar, wohl, ja* 등)은 대부분 로맨스어에서 무상응이거나 강세상응을 가진다. 이제 그러한 상응들이 확인되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더우기 대비문법의 실제적인 목적에 도달된다.(말하자면, 한 언어의 문법적인 차이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하기에서 다른 수단을 가지고 만들어 질 수 있거나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이 대비적으로 중요하다) 또 상이한 언어들 사이에서 문법, 어휘, 음운론사이의 경계의 상이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흥미 있는 문제제기들이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순수한 문법적인 구조들 사이의 비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적으로 고찰되고 이제까지의 실제적인 우연성에 의존하지 않는 대비문법의 가치란 무엇인가? E. Coseriu는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로, 어떤 이상적인 대비문법은 어떤 독자적인 방법론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적인 요인들이 기술과 해석을 위한 어떤 방법론은, 이러한 요인들이 의의 있게(즉, 통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대비될 수 있기 위해서 미리 존재해야 하며, 그 때문에, 대비문법은 그 자체로서 설명의 방법일 수 없으며 이미 다른 수단으로 설명된 것을 토대로하는 응용의 한가지 종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비문법은, 만일 記述(Deskription)이 담화의미(Rebedeutung)내지 문장명칭(Satzbezeichnung)이 아니라 우선 그 자체로서 언어적인 기능에 관계해야만 한다는 원리에 동의할 때, 그 문법 자신이 기술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상이한 언어들에 완전히 상이한 범주를 통해서 >동일한 것<을 말할 수 있다. 어떤 기술적인 가치가 대비문법에 두어질 때, 극단적으로 상이한 언어들에 상이한 언어적인 기능이 다만 명칭에 있어서 이들의 일치 때문에 서로 동일시 되어지거나 역으로 어떤 언어의 단위적인 기능이 어떤 다른 언어에서 상응의 다수 때문에 상이한 기능들의 우연한 蓄積을 위해서, 즉 >다의성<의 경우들을 위해서 설명되는 심각한 위험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 *tenia/tuvo*에 대한 *hatte/bekam*의 경우에 있어서 독일어의 상응 때문에 >다의적<으로 설명되어지는 위험이 생겨났다. 그때에 이것은 *tender*라는 단위적인 스페인어 언어의미의 기대되는 >다항가<(말하기의 다수)에 속하며 본래적인 >다의성<(여러상이한 언어의미에서, 즉 동일한 개별언어내에서 상이한 단위적인 기능들에서 자료적인 표현의 동일성)과 절대로 관계없다. 세번째로, 대비문법은 개별언어적인 범주의 해석의 관점에서 어떤 자신의 이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실제로 잘못된 해석이 완전히 옳은 대비적 응용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능의 정의는 이러한 응용에서 일치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동일화가 바르다는 것으로 충분하다. 때에 따른 개별어와 관련해서 X_1 과 X_2 라는 우리의 영역이 경우에 따라서 틀리게 해석되어 진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을 정확하게 경계짓는 일과 이들의 대립이 오히려 대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E. Coseriu는 개별어적인 관점에서 대비문법은 응용언어학의 분지로서 이 문법의 실제적인

가치를 만족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대비문법의 실제적인 고유가치는 어떤 다른 영역, 즉 언어비교의 영역에 있다. 중요한 유추와 차이가 언어형상속에서 대비적으로 확인되어질 수 있으며 그것으로 개별 언어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중요하고 일반적인 통찰이 얻어진다. 그러나 그러한 유추와 차이에 대한 질문이 대비문법 그 자체에 의해서 거의 제기되지 않고, 오히려 대비문법과 유사한 소위 비교문체론(이 이 가능성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다면적인 언어비교에서이다. E. Coseriu는 비교의 문제들이 바르게 제시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대비문법을-이미 이 문법에 토대를 두고 있는 기술모형에서 출발하면서 몇가지로 쇠신하고 있다.

우선 언어적 내지 문법적 구조 자체의 기술에 앞서 여러가지 구별들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말하기의사물연관성¹⁴⁾과 언어연관성의 구별이다. 그의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말한다면, 역사적 언어내에서 통지역적(diatopisch), 통계층적(diastratisch), 통위상적(diaphasisch)(“방언”, “언어단계”, “언어문체”)사이의 구별이다. 이것은 반복된 말하기(wiederholte Rede)와 자유로운 말하기 기술(freie Sprachtechnik)의 구별이다.¹⁵⁾

E. Coseriu는 언어들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기 위해서 특히 문법적인 구조자체¹⁶⁾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구별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 언어들에 따라서 최소단위(minimale Einheit), 낱말(Wort), 낱말그룹(Wortgruppe), 절(Klausel), 문장(Satz), 경우에 따라서 텍스트(Text)를 포함하는 문법적인 층위(grammatische Schichten)이다. 이러한 문법적인 층위의 수는 언어마다 다르지만 최소한도로 최소단위의 층위와 문장의 층위는 공통적으로 보고 있으나 나머지는 문법적인 관점에서 없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언어들에서 낱말과 낱말그룹이 자율적인 문법적인 층위로서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이들이 다른 언어들에서 보다 훨씬 더 적게 존재한다. 그는 예를 들어 로만스어에 대한 라틴어의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라틴어에서는 낱말과 낱말그룹이 대부분 이미 일정한 낱말기능에 병렬되기 때문으로보고 있다. 텍스트의 층위는 통상적으로 제한된 정도에서 개별언어적으로 형상화되어져 있다. 즉, 어떤 경계요소와 결합요소에 관해서만 그렇다

14. 언어와 사물사이의 구별은 E. Coseriu에 의해서 매우 강조된 어휘연구의 전제조건들중의 하나이다. 이 구별이 없이 사람들이 어휘연구를 할 때 전적으로 사물과만 관계하는 전문용어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므로 본래 의도하고 있는 어휘연구를 어렵게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alt, jung, neu; Mensch, Tiger, Baum, Tisch, Liebe; kommen, schlafen, wohnen과 같은 Lexem과는 달리 Base, Säule 등과 같은 전문용어들은 다만 하나만의 의미의 사물연관성을 가진다. 그래서 Lincoln, Nebraska; Chicago, Illinois; Madison, Wisconsin과 심지어는 Washington D. C. 같은 연결들은 일상적인 말하기에서 익숙하게 되어져 있다면, 미국에서 많은 주 이름이 여러번 나타난다고하는 사물제약의 사실과 연관되어져 있다.

15. “반복된 말하기”와 “자유로운 말하기 기술”은 Coseriu의 구조적 의미론에서 사용된 용어로 어휘구조를 연구할 때 전제되는 7가지 사항중의 4번째 것으로 “반복된 말하기”는 항상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확고한 결합 속으로 나타나는 요소들로서 이들은 말해진 전달 속에서 문장이나 텍스트로 존재하며, 반대로 “자유로운 말하기 기술”은 언어의 결합규칙에 의하여 자유로히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한 고정된 결합이나 문장에 속하지 않는 요소들로 이러한 요소들이나 방법은 그들의 적용이 자유롭고 말하기 기술의 영역을 제시한다.

16. E. Coseriu는 여기서 음성적이고 어휘적인 구조는 간과한다고 했다. a. a. O. S. 49.

(문장에서 문장으로 이행, 보충, 열거의 방법). 이러한 결합요소들은 언어들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으며, 다른 텍스트구조들, 예를 들면, “소네트”, “이야기”, “소설” 등은 개별언어적인 형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문법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로, 상위정돈(Superordinierung), 종속(Subordinierung), 병렬(Koordinierung), 대치(Ersetzung) (“대명사화”)라는 층위의 특성이다. 이 문법층위의 특색의 종류나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며, 각 언어에 대해서 무엇이 상위정돈(내지 종속, 병렬, 대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상응하는 특색이 때에 따라 성취될 수 있는지, 이러한 관점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 스페인어와 이태리어에서 llueve, piove를 가지는 낱말들이 상위정돈될 수 있으며 비 제한적이며, 그러한 낱말들은 문장과 텍스트의 층을 포함해서 각각의 자의적인 더 높은 층을 설명할 수 있으나 lu, un과 같은 낱말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메타언어 사용을 간과한다면). 그러나 독일어, 프랑스어, 영어에서는 regnet, pleut rains와 같은 낱말들은 문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어에서는 현재분사를 사용하는 종속화가 영어의 -ing 종속화 혹은 이태리어 동명사 종속화보다 많은 제약이 있다고 했다. 다음과 같이 예를 들고 있다.

영 : he sat in the library reading a book

이 : sedeva nella biblioteca leggendo un libro

이와는 반대로

독 : er saß in der Bibliothek und laß ein Buch

그러나 ein Buch lesend saß er in der Bibliothek은 통례적이지 아니며, 영어에서 King of England와 같은 낱말구름은 종속화되어질 수 있다. 다시말해서 낱말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the king of England's army같은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와는 반대로 로맨스어와 독일어에서는 그러한 유사한 종속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 il re dell'esercito d'Inghilterra - l'esercito del re d'Inghilterra ;

스 : el rey del ejército de Inglaterra - el ejército del rey de Inglaterra ;

독 : der König des Heeres von England - das Heer des König von England

도 복합의 형태에서 종속화의 가능성이 상이한 언어들에서 상이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Der Wolf und der Fuchs와 같은 표제에 있어서 명사적 표현의 병렬은 완전히 통례적이며 병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한다면 라틴어에서 3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계사병렬(et, etque, -que)이 있는데, 독일어와 로맨스어 병렬보다 완전히 다르게 형상화되어져 있다.

대치의 영역에서 언어들 사이의 구별은 대단히 수가 풍부하고 자주 눈에 띄게되는 데,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ja, nein, doch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러한 문장의 전체적인 대치는 라틴어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나 이와 동일한 대치의 종류로 불어 oui, non si는 독일어에 상응한다. 여타 로맨스어에서는 두 부분으로된 대답을 가지는 데, 이태리어 si-no이다. 완곡적인 동사형의 재수취를 할 때, 대답에서 사람들은 독일어에서 주동사를 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체 완곡법적인 동사형태를 조동사만 가지고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Hast du schon gegessen? –Habe ich; Wirst du auch singen? –Ja, ich werde 등이다.

세째로, 문법의 영역인데, 구성문법(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형태론”), 기능문법(여러 상이한 층위의 기능적인 파라디그마), 관계문법(여러 상이한 파라디그마 사이의 관계, 원래 관계의 일정한 종류를 설명하는 소위 변형을 통하여)이다. 문법의 영역의 차이는 그 자체로서—특히 구성문법과 기능문법—가장 잘 알려진 차이이다. 왜냐하면 이 영역이 전통문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구조적 문법으로서 중요한 자료모음(Hauptkorpus)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영역들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세심하게 서로 나누어져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차이들이 구성성분 영역에서, 기능영역에서, 관계영역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라틴어, 스페인어, 이태리어에서 어떤 도시이름과 함께 하는 장소상황에서 그러하다.

라틴어	스페인어	이태리어
Romae	en Roma	a Roma
Romam	a Roma	
Roma	de Roma	da Roma

여기서 라틴어와 스페인어는 구성적이다. 즉, 기능의 자료면적인 표현에서 더우기 완전히 상이하다. 그것은 상응하는 기능이 양 언어에서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이태리어는 구성적인 관점에서 스페인어에 유사한데, 그것은 공통적인 두 기능이 두 언어에서 동일한 방법, 즉, 전치사의 도움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태리어의 기능적인 대립이 두 부분으로 된 대립이기 때문이다. 스페인어는 기능적인 관점에서 라틴어와 다르다.

여기서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위에 소개된 보기에 관계하고 있다. in urbe Romá, in urbem Romam, ex urbe Romá 유형의 확대된 장소술어들은 Romae, Romam, Romá 에로의 언어내적 관계속에 있다. 그리고 이 두 파라디그마는 동시에 구성적으로 상이하다. 스페인어는 확대에서 근본적으로 단순한 장소진술어에서 처럼 동일한 파라디그마를 가진다: en la ciudad de Roma, a la ciudad de Roma, de la ciudad de Roma.

소유대명사의 비 술어적 파라디그마에서 스페인어는 독일어, 불어와 함께한다. 예를 들어, mi libro-mein Buch-mon livre이다. 이 세 언어는 이태리어에 대립한다: il mio libro. 관계적인 관점을 끌어들이면, 그것은 다른 상태에 있게 되는데, 소유의 술어적인 파라디그마에서 불어는 더우기 언제나, 적게는 부분적으로 독일어와 함께한다: ce livre m'appartient-dieses Buch gehört mir. 이와는 반대로 스페인어는 이태리어에 유추적인 것으로서 증명된다: este libro es mio-questo libro é mio.

E. Coseriu는 언어수입의 실제에 대한 문법영역의 관계와 연관해서 구성적인 영역에서 차이를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언어들의 지식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한

기능적이고 관계적인 차이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 있다.

마지막 네번째로, 언어기술(Sprachtechnik)의 구조화의 수준(그리고 그 때문에 “문법성”의 대상적인 관계) : 언어규범(Sprachnorm), 언어체계(Sprachsystem), 언어유형(Sprachtypus)(그리고 또한 음성적인 구조와 어휘적인 구조에 대해서 유효한 구별)이다. 언어들 사이의 차이에 관계하는 언어구조의 면이 대단히 정확하게 고려되어질 수 있다. 이것이 한편으로 말하기의 잠재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말하기의 인수가 연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차이들은 언어규범에만 관계한다(즉, 전통적인 통례적 기능의 실현). 이와는 반대로 다른 것은 언어체계에 관계하며(즉, 대립적인 방법과 기능 그 자체)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언어유형(즉, 방법과 기능의 종류와 범주)에 관계한다. 언어유형에서의 차이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중요한것은 언어체계와 언어규범사이의 구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단순한 언어체계, 즉 대립적인 언어기능 자체만을 가지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언어체계들은 직접적으로가 아니고 언제나 언어규범의 수준에서 실현되어지며 그것을 통해서 갖 가지의 제한과 고정 이 나타난다. 더우기 언어체계에 상응하는 것은 언어적으로 “올바르며”, 이해적이며 잠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언어체계를 가지고 하는 실제적인 말하기는 어떤 일정한 실현규범(혹은 여러가지 상이한 규범)에 따라온다. 예를 들어 독일어 natürlich는 이태리어와 스페인어에서 언어체계에 따라 naturalmente에 상응한다. 그러나 이태리어와 스페인어 언어규범에서는 독일어 natürlich에 대해 naturalmente가 아니고 흔히 si capisce che...내지 claro está que...(혹은 desde luego)를 찾게 된다. 이것은 이태리인과 스페인인들은 “natürlichlich”의 내용을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어떤 언어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치 않으며 오히려 일정한 상황들 속에서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고 이해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언어체계를 알아야 한다. 어떤 언어 체계를 정말 본토인 처럼 말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언어 규범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언어의 언어체계를 가지고 어떤 언어규범을 번역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한다면 이해 하지 못하는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Kein Eingang을 *nessuna entrata, *aucune entrée, *ninguna entrada로 번역해서는 안되고 es hat keinen Zweck를 *non ha (nessuno) scopo로 번역해서는 안된다. 독일어 Schade ! 를 축어적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프랑스인이 바로 “Schade(n)” (dommage)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태리어, 루마니아어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에대해 영국인과 스페인인은 축어적으로 “Welch ein Mitleid” (What a pity !, !Qué lástimal !)를, 포르투갈인은 “Welch ein Schmerz”(Que penda !), 이태리인과 루마니아인은 “Welch ein Sünde” (Che peccato !, Ce pacat !)를 말한다. 그러므로 언어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관점에서 언어체계에 맞게 만들어진 것이며, 동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언어규범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E. Coseriu는 “하나의 엄청난 프로그램이 문제시되지만 일반적인 특징으로 개괄된 모든것이 실현되어지면 대비문법은 하나의 비교기술문법이 되어질 것이며 언어비교를 위해서 특히 언어의 소위

“보편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것”을 확신하고 있다.

K. Rein에 따르면 Coseriu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비언어학이 극히 제한적으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량의 연구논문과 보다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대비언어학의 실제적·교수법상의 목표, 즉 대비언어학은 학교수업을 개선시키기 위해 바로 이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다.¹⁷⁾

3.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의 관계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두 분과 모두 두 언어 이상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이 찾아질 수 있다. 그 때문에 본 장에서는 대비언어학과 번역의 서로의 관계를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는 E. Coseriu의 중요한 이론을 소개하면서 이 두 분과를 통한 대비언어학의 본래의 목표인 외국어 수업과 습득에, 번역학의 본래의 목표인 번역의 실제에 토대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번역학은 등가(Äquivalenz)의 조건들을 연구하고, 번역등가의 기준으로서 유효한 두 언어의 발화 및 텍스트의 부가를 기술한다. 그래서 빠롤(parole)의 학문이며, 대비언어학은 일치(형식적 유사성)의 조건과 전제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일치하는 구조들과 문장들을 연구한다. 그래서 대비언어학은 랑구(langue)의 학문이다.¹⁸⁾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결국 등가(Äquivalenz)의 문제이다. 그러나 방금 위에서 언급한대로 등가를 보는 관점이 이 양자에게 있어서 상이하다는 것이다. 대비언어학에서는 형식적등가를 찾고 번역학에서는 내용, 즉 의의의 등가를 필요로하기 때문에 상당한 등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K. H. Wagner의 말과 같이 대비언어학이 “둘 이상의 언어들에 대한 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이 언어들의 공통성과 상이성을 모든 언어적인 차원들, 즉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어휘론등에서 확인하고 기술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지만, 언어이론, 기술이론, 그리고 실제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그 비교들은 무엇을 전제로 해야할 것인가를 W. Koller는 묻고 있다.¹⁹⁾ 언어이론의 관점에서 언어체계내지 부분체계를 비교할 수 있으나 이 비교가 아무런 조건없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수 없으며, 오로지 구조 내에서의 위치가치와 관련시킬 때만 체계의 요소들이 정의된다고 하는 소위 구조주의의 견해에 따르면, 상이하게 구조화된 언어체계들의 단위들을 비교하는 일은 이론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언어이론 및 기술이론의 관점에서는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개의 모든 비교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17. K. Rein, a. a. O., S. 21.

18. W. Koller, Ebenda, S. 251. G. Nickel도 “대비언어학을 위해서 선택된 문법모델의 도움으로 언어의 체계를 기술하는것”이라고 했다(1973).

19. W. Koller, Ebenda, S. 241.

문법모델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²⁰⁾ 마지막으로 기술이론 및 실제기술의 관점에서 비교되는 언어들의 언어단위 내지 발화는 관련문법의 문법범주에 관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써 서로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 내지 발화의 부가에 유효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되어진다. 즉, 대비기술을 할 때, 과연 무엇이 무엇과 비교되며, 또 한 언어의 어떤 기준을 근거로 하여 다른 언어의 어떤 단위들에 부가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고 보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비언어학의 이론에서 나올 것으로 Koller는 기대하면서, K. H. Wagner와 일치하여 대비언어학의 현재의 수준은 이론형성을 위한 발단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²¹⁾

대비언어학의 이러한 이론적인 약점을 보완하며 지금까지의 잘못된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수정하고 번역학과 상호연관관계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E. Coseriu의 매우 중요한 논문 “대비언어학과 번역. 이들의 상호관계”²²⁾에서 핵심적인 토론을 다루어 보고자한다.

W. von Humboldt와 E. Coseriu가 인용한바 있는 Hegel의 “Bhagavad-Gita”²³⁾에서 Hegel이 말하고 있는 “표상들”(Vorstellungen)에 대해서 Coseriu는 어떤 공동체의 생활과 언어외적인 문화와 연관을 가지며, 어떤 텍스트내에서 명시적이거나 내포적으로(바로 텍스트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함께 주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E. Coseriu는 루마니아의 문필가 M. Sadoveanu의 책속에 있는 “La Hanul Ancutei”(Ancuta의 농가)라는 이야기를 보기로 들고 있다:

“내가 Ancuta의 농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때는 황금색으로 물든 가을이었다. 이 일은 더 먼, 아주 옛날에 일어 났는데, 성 Ilie에 엄청난 비가 내렸던 바로 그 해였다. 사람들이 검은 용을 볼 수 있었다. 그전에 사람들이 결코 보지못했던 새들이 폭풍우에 의해서 이리 저리 소용돌이 쳤고 해가 질 무렵에는 공중으로 노를 젓듯이 날랐다. 그러나 Mosch Leonte는 성좌책으로 점을 쳤다. 그는 Heraklius황제의 기호를 해석했고 그들의 날개가 수빙처럼 빛나는 새들이 여기 섬으로부터 세계의 끝에서 길을 잃었다. 황제와 포도나무 열매의 풍성함사이의 전쟁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은

20. 이점에 관해서 Koller는 E. A. Levenston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두 언어의 문법양식을 비교하려고 하는 여하한 시도에 있어서 그 선행조건이란, 물론 동일한 문법이론에 따라 쓰여진 개별언어 문법기술이다. (1966, S. 200).

21. W. Koller, Ebenda, S. 244.

22. E. Coseriu, *Kontrastive Linguistik und Übersetzung: ihr Verhältnis zueinander*. in: *Kontrastive Linguistik und Übersetzungswissenschaft Akten des Internationalen Kolloquiums*, (Hrsg.) Wolfgang Kühlwein, Gisela Thome, Wolfram Wilss, Trier/Saarbrücken 25.~30. 9. 1978, München, 1981, S. 183~199.

23. E. Coseriu가 인용한 독일어 번역을 다시 우리 말로 번역했다: “어떤 한국민의 언어로 하는 표현은... 우리 언어의 어떤 표현으로 설명되어지며, 그 표현은 그의 완전한 명확성에서 그것에 상응한다는 사실을 요구하는 일이 확실히 사물의 본성에 모순된다. 우리 언어의 한 낱말은 그러한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일정한 표상을 주며 그것으로 다른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표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민의 그것을 주지못한다.”

어디로부터 날아올랐는지. 사실 그후 곧 백인황제는 이방인들의 혀를 대항해서 모스크바인들을 소집했다. 성좌의 기호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신은 저지의 포도밭에서 그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어서 포도원 주인은 어디에다 모든 포도를 채워야만 할 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질문되는 것은, 무엇이 이 짧은 텍스트에서 언어외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유효한가이다. 이것은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세계 내지는 세계표상이다. 이것은 과거의 해가 어떤 확고한 순서에서 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목할만한 사건들을 통해서(여기서: 엘리아시아대의 엄청난 비) 동일시 되어지는 어떤 세계가 문제시 되어진다. 그 세계에서 비는 어떤 검은 용과 연관을 가지며, 그 세계에서 모든 상이한 것들(여기서: 그전에 보지 못한 새들)이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징후이다. 그 세계는 땅이 끝을 가지고 있으며, 땅의 끝은 섬이고, 거기서는 예를 들어 전쟁과 풍부한 수확이 성좌의 기호들이 증명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세계는 텍스트에서 진술된 것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다. 오히려 이 세계는 전제되어지며 묵시적으로 이 세계에 관계되어진다. 또한 사람들은 자제하게 언급된 것의 완전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미리 인식해야만 한다. 전체적으로 관련하고 있는 텍스트에서 인용된 구절의 기능은 이러한 특별한 세계, 즉 계속해서 동일한 텍스트에서 이야기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문화들, 그러나 그 문화들은 그 자체로서 표현되지 않고(예를 들어 그것은 다음과 같이 말해지지 않는다: “몰다우의 농부들은... 한것을 믿는다”), 오히려 그 문화들은 개별기술의 함축적인 관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화들의 소개를 하는 기능이다. 그러므로 언급된 텍스트기능은 언어외적인 수단(문화들의 언어외적 지식)을 통해서 실행된다. 이러한 기능, “텍스트들”(=말하기 활동 내지 말하기 활동의 연관하는 순서)에서 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종류의 내용을 E. Coseriu는 의의(Sinn)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의의가 위에서 언급한 텍스트와 같이 복잡하지 않으며 또 동시에 모든 의의가 언어외적으로 표현되어 지거나 언어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다. 또한 순수하게 언어적인 수단(물론 대부분 상황이나 맥락을 통해서 규정된다)의 도움으로 성취의 가장 단순한 단위들도 언급할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질문, 대답, 인사, 호칭, 이의, 확인, 요구, 명령 등이다.

E. Coseriu는 이 의의를 두 가지 종류에서 구별하는데, Hegel의 용어 “표상들”에 해당하는 의미(Bedeutung)와 명칭(Bezeichnung)에서 구별이다. Coseriu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보기를 들고 있다: “Grau, teurer Freund, ist alle Theorie./Doch grün des Lebens goldner Baum”(귀한 친구여, 모든 이론은 회색이다. 그렇지만 생의 녹색은 황금빛 나무다.) 그러나 이 문장은 엄격히 말해서 비 논리적이며 심지어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어떤 이론이 회색일 수 없으며, 생의 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녹색이며 황금색인 나무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괴테의 이 시행이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이 시행은 다만 “엄격하게 생각지 않아서” 모순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괴테는 어떤 일정한 나무가 언어외적인 실제에서 녹색이며 동시에 황금

색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녹색”(녹색자체의 색을 통해서) 상징되어진 것과 “황금색”을 통해서 상징되어 진것이 등가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러한 “날말적으로” 말해진 것이 시행의 본래의 “텍스트내용”이 아니다. 더우기 모순은 의미들 사이에서와 명칭의 수준에서 지양되어 진다. 더 나가서 이 시행의 의미는 바로 개별어의 모순이 생겨남으로 해서 그리고 그 모순의 동시적인 폐지를 통해서 바르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E. Coseriu에게 있어서 의미는 어떤 개별언어에서 그 자체로서(예. 독일어, 불어에서) 그리고 언어자체의 언어적인 대립을 통해서 주어진 내용이며 더우기 문법의 영역에서 주어진 내용이다. 이와는 반대로 명칭은 때에 따라 명령된 언어외적 실체에 대한 관계, “사물들”(내지 상황, 사태) 혹은 언어외적인 실체자체, 더우기 문법의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어휘의 경우에 대한 관계, 즉 언어외적인 “지시물”이다.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mit X라는 구성은 “공존(Konkomitanz) 혹은 “공동현존”(Koprasenz)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예 : “und x ist dabei”) 대단히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mit dem Messer와 같은 표현은 널리 퍼져있는 의견과는 반대로 그 자체로서(즉, 독일어 그 자체로서) 어떤 도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mit Zucker, mit Maria 혹은 Der Mann mit dem Messer에서 mit dem Messer는 그 자체로서 “도구적인 의미”를 느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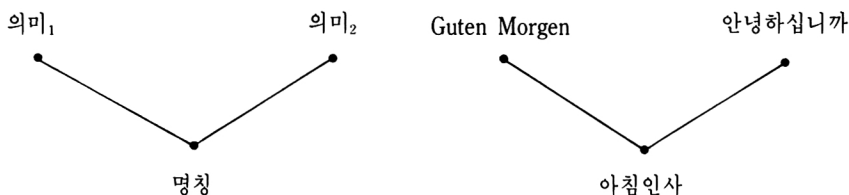
말하기행위(Sprechakt)에서 의미는 명칭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어에서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때의 명칭자체가 아닌 일정한 명칭들의 개별언어적으로 경계지어진 가능성이다. 그래서 독일어에서 mit x는 대단히 넓은 가능성의 등급을 경계짓는다. 이태리어 scala의 의미는 사정에 따라서 독일어에서 Treppe와 Leiter를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동일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독일어 alt는 사정에 따라서 한국어에서 낡은과 늙은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내용(의미), 명칭, 의의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번역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규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 E. Coseriu가 의미, 명칭, 의의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대비언어학 뿐만 아니라 번역학의 본질규명에 이 세 가지의 구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E. Coseriu는 “번역은 전적으로 텍스트내용과 관계”하기 때문에 “텍스트만이 번역되거나(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더 나가서 의미들은 텍스트내용에 속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의미를 수단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것을 표시한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은 “상응하는 개별언어에서 주어진 의미의 도움으로 명칭을 동일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 “번역하는 것은 이미 동일시 되어진 명칭들을 위해서 목표어에서 정확하게 이 명칭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의미들을 발견하는 것과 다름없다.”²⁴⁾ 이에 대한 E. Coseriu의 매우 간단하면서도 위의 언급을 쉽게 이해할 수

24. E. Coseriu, *Kontrastive Linguistik und Übersetzung: ihr Verhältnis zueinander*, S.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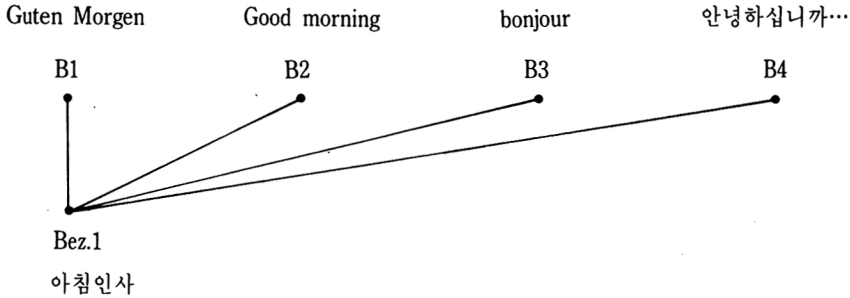
있도록 돕는 보기가 독일어의 아침인사 “Guten Morgen”이다. 그는 이것을 텍스트로 보고 있는데, 화자와 청자가 아침에 서로 만났다고 하는 공통적인 상황 내지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자는 Guten Morgen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사용해서 서로 인사하는 상황을 명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국어로 옮길때 “좋은 아침”이라는 의미의 일치가 아니라, 여기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명칭을 찾는 다음 그것에 일치하는 한국어의 의미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도해는 E. Coseriu가 사용했던 것을 방금 위에서 설명한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변형시켜 보았다.



즉, 독일어에서 Guten Morgen의 의미₁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명명하는가이며, 이 명명이 한국어에서 무슨 의미₂를 가지는가이다. 더 나가서 명칭과 의의가 텍스트내용에 속하며, 의의는 언어적인 수단 그 자체를 통해서(즉, 때에 따라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의미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언어외적인 수단 내지 언어자체의 순수하지 않은 언어적인 사용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여기서 E. Coseriu는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에서 연관을 가지는 문제는 의의를 무시하고 명칭을 대비하는데서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번역의 과제는 바로 출발텍스트와 목표텍스트에서 명칭들이 변화하지 않고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한 근본적으로 상이한 의미들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표시하는데서 생겨난다. 따라서 번역자는 우선 원본텍스트에서 -혹은 최소한 이 텍스트가 다른 의미로의 전위의 관점에서 필수적이라는 그러한 정도에서- 명칭들을 정확히 동일시해야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명칭들을 목표언어의 적합한 의미로 환원해야 한다.

대비언어학은 근본적으로 생각해서 공시적인 언어비교이다. 이것은 개별어들 사이, 즉 근본적으로 의미들 사이의 상이점과 유추를 다룬다. 이것을 위해서 대비언어학은 서로 비교된 언어들 중의 하나를 명칭체계(“세계형상”)로서 관찰해야 하며 다른 언어들은 -다른 의미들을 통한 동일한 “세계”의 형상들로서- 이러한 체계들과 비교해야만 한다.



여기서도 다시 E. Coseriu의 도해를 보충시켰다. 의미 1, 2, 3, 4...는 같거나 다르지만 동일한 사태를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의의를 나타낸다.

대비언어학에서 E. Coseriu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tertium comparationis(비교를 위해서 끌어내진 제 3의 비교)이다. 예를 들면 두 개의 대비적으로 취급해야만 하는 언어들로부터 독립적인 체계, 즉 제 3의 언어나 이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어떤 개별언어외적인 명칭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매우 성과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실행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단일방향적인 비교”(unidirektionaler Vergleich)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교해야만 하는 언어들 의 하나가 모든 다른 언어들을 위한 척도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그 비교가 “단일방향적”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앞에서 잠간 언급한대로 이제까지의 대비언어학은 대부분 언어체계(Sprachsystem)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언어의 대비는 언어의 체계뿐만 아니라 언어규범(Sprachnorm)과 언어유형(Sprachtypus)의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을 E. Coseriu는 강조하고 있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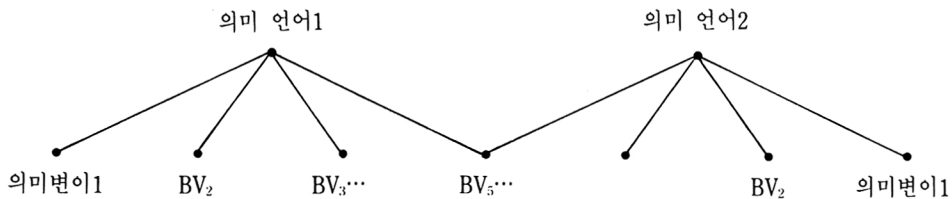
E. Coseriu는 의의있는 비교의 가능성을 보이기 위해서 모든 경우에서 두 가지 형식-방법론적인 제약들이 고찰되어야 한다고 했다. 첫째로 비교해야만 하는 개별언어의 기술이 정확히 동일한 기술에 따라 동일한 技術과 동일한 개념적인 기구를 가지고 시도해야 한다. 즉, 그 記述은 예를 들어 기능적(funktionell) 혹은 각각의 경우에 생성-통사적(generativ-syntaktisch)이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기능적으로 기술된 언어는 생성-통사론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는 어떤 언어와 근본적으로 의의있는 방

25. E. Coseriu는 모든 언어적인 연구에서 언어체계, 언어규범, 언어유형의 철저한 구별을 전제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규범은 개별언어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통례적이고 전통적인 실현, 예를 들어 내용적인 기능, 즉 명칭에 있어서 이들의 통례적인 사용이며, 언어체계는 개별언어적인 기능적 대립과 이들의 파라디그마의 수준, 예를 들어 낱말발과 문법적인 받이며, 언어유형은 개별언어적인 구조의 원리, 즉 이들의 연관 관계속에서 서로 고찰하는 기능과 방법의 종류와 범주의 수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다른 논문들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용어들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 Probleme der strukturellen Semantik, 2. unveränderte Aufl. Tübingen 1975, S. 41, Einführung in die strukturelle Betrachtung des Wortschatzes, in: Strukturelle Bedeutungslehre, hrsg. von Horst Geckeler, Darmstadt 1978, S. 229.

법으로 비교될 수 없다. 여기에 덧붙여 그는 언어를 그 자체로서 이들 구조의 고유성에서 분석하는 것이 문제시된다면 기능적인 기술이 유일하게 타당한 기술이라고 했다. 둘째로 원래적인 비교는 우선 記述에 따라서 수행되어져도 된다. 즉, 기능과 범주가 모든 언어에 대해서 분리해서 확인 되어지고 기술되어져야만 한다. 그러므로 어떤 언어 x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사람들이 그 차이가 독일어에 없거나 그 차이가 독일어와 비교해서 필요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대비언어학은 대비문법으로서 생성되어져 있고 흔히 이것은 아직도 “대비문법”이라고 명명되어진다. 곧 대비문법은 더 좁은 의미에서 문법일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이 동시에 상이한 개별적인 영역을 고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유사하거나 심지어 같은 내용 차이가 여러가지 상이한 언어에서, 흔히 이들 구조의 상이한 영역에서 되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언어로부터는 그들의 문법에 있어서, 다른 언어로부터는 경우에 따라서 어휘의 영역에서나 혹은 음성학을 수단으로 되어진다. 스페인어에서 *temia/tuvo*의 문법적인 차이는 독일어에서 흔히 *hatte/bekam*이라는 어휘적인 수단으로 되어진다. 독일어에서 불변사들이 수행하는 것을 로만스어에서는 흔히 억양을 통해서 수행된다고 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차적인(즉, 비규칙적 내지 다른것 만으로 표현되어진) 기능들이 문제시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언어의 계속적인 주기능에 상응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대부분 다음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즉, 어떤 언어의 한 의미변이체가 어떤 다른 언어의 다른 의미의 변이체에 상응하거나 일치한다. 바로 그 때문에 전적으로 언어유형과 언어체계의 수준에서 수행된 대비언어학이 번역을 위해서 비교적 효과적이다. 번역에 있어서는 의미들(해당하는 개별언어들의 기능적 단위들) 사이의 상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의 사용, 즉 의미의 변이체들 사이의 상응들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우선 언어규범의 대비언어학 - 즉, 기능적인 단위들의 실제적인 사용을 연구하는 어떤 언어학 - 이 번역이 행해지고 있는 수준에 직접적으로 관계한다.

E. Coseriu는 Rabe²⁶⁾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그에게 동의하면서 그와 다른 두가지 견해를 피력했다. 1) 이러한 관점에서 번역은 “텍스트 중심적”이 아니고 “언어중심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26. H. Rabe, *Zum Verhältnis von kontrastiver Grammatik und Übersetzung*. in: G. Nickel(Hrsg.) *Reader zur kontrastiven Linguistik*, Frankfurt a. M., S. 59~74.(재인용)

번역은 대비언어학과 도대체 아무런 관계에 있지 않을 것이다. 의미의 변이체들이 텍스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옳다. 언어는 텍스트에서만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래적인 텍스트중심은 이러한 변이체들에 관계하지 않고, 이들과 함께 만들어진 의의, 텍스트내용 그 자체로서 텍스트내용에 관계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의의가 문제시되지 않고, 언어사용, 즉 규범으로서 개별언어가 문제시되었다. 2) 번역상응에서 때에 따라 사용된 의미에서 보다 더 적지 않고 더 많은 내용적 특징을 가진다. 출발어와 목표어에서 사용된 의미의 공통적인 모든 의미보다 더 적을 수 있다. 이것이 정상적이다. 그러나 번역에서는 상이한 언어들 사이의 직접적인 상응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어떤 언어에서의 명칭의 부류, 명칭등가에 따른 의미변이체들이 중요하다. 하나의 변이체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들에 상응하는 기능적인 단위 보다는 더 많은 특징들을 제시한다. 왜냐하면 모든 변이체들에서 아직도 문맥적이고 상황적으로 주어진 특징들이 개별언어적으로 주어진 특징들에 접근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und X ist dabei als Instrument”는 단순한 개별언어적인 “und X ist dabei”에 대해서 어떤 부가적인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예시된 “명칭부류”에 있어서는 번역등가가 문제시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류는 어떤 언어에 대해서 때에 따라 어떤 유일한 다른 언어와의 비교에서만이 경계지어질 수 있다. E. Coseriu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목적(번역, 외국어 수업)을 위해서 어떤 언어의 변이체의 부류를 다른언어와 비교해서 작성할 수 있다는 것과 그러한 부류들이 비교가 수행되어지는 언어들에 따라서 상이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eigentlich라는 독일어에 대한 등가부류를 불어와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작성한 Albrecht와 abnehmen에 대해서 언어내적으로 20개의 “어의소”들을 확인하고 사용유형을 이태리어로 번역을 위해서 50개 이상의 의소를 구별하고 있는 Meier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응어들은 두 가지 언어의 완전한 대비적인 언어학을 확인해야하며, 여기서 언어규범과 연관해서 특수한 현상들을 고려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대비언어학이 개별언어적인 구조만을 대비하는 한, 즉 대비언어학이 소위 “유형론적”이기만 한다면, 대비언어학은 최상의 경우 번역을 위해서 다만 보조학문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다 내용적 - 그것을 통한 자료적인 사용의 연구가 있다면, 그것은 개별어에 관계하는 번역과 일치할 것이다. 이러한 대비언어학을 위해서 번역학이 끊임없는 원천인 것으로 보고 있다. 등가의 확인은 최소한 함축적인 번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독일어의 관점에서 언어인 대비언어학은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위한 독일어-영어 번역학일 것이라고 했다. E. Coseriu가 “일 것이다”와 같은 말을 쓰게되는 것은 아직도 그러한 자세한 대비언어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이상적인 대비언어학이 번역을 위해서 모든것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번역은 개별언어적으로 제약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텍스트제약적”이다. 여기서 E. Coseriu는 대비언어학을 위해서 번역실체의 영역에서 일련의 필수적인 응용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로 대비언어학은 “자유로운 언어기술”(freie Sprachtechnik)으로써 개별언어와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텍스트는 자유로운 언어기술의 응용뿐만 아니라 동시에 “반복된 담화”(wiederholte Rede)(더 넓은 의미의 숙어론이나 관용어론)를 포함한다.²⁷⁾

두 번째로 어떤 상호연관관계를 대비언어학이 때에 따라서 다만 통일적인 언어체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기능적인 언어”를 위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에서는 대단히 흔하게 동일한 “역사적 언어”의 상이한 기능어들(상이한 방언들, 상이한 언어수준들, 상이한 문제들)이 병존하여 나타난다. 더우기 사람들은 모든 기능적인 언어에 대해서 하나의 분리된 대비문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번역자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텍스트에서는 서로 상이한 기능어들이 나누어질 수 없고, 모든 기능은 그 자체를 위해서, 연속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나폴리어-독일어 대비문법이 더우기 나폴리어로부터 번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저기서 나폴리어적인 것이 나타나는 이태리어 텍스트의 번역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세 번째로 대비언어학은 그의 본질에 따라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명칭상응에 관계한다. 그러나 텍스트에서는 자주 새로운 명칭들이 나타나며, 그것이 흔히 번역에서 새로운 명칭등가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네 번째로 텍스트들은, 단순히 상응하는 언어들의 전통과 일치하지 않는 그들 자신의 전통을 가진다. 어떤 텍스트들은 어떤 언어공동체에서 통례적일 수 있으며, 어떤 다른 공동체에서는 도대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로들어 인사형식으로서 “Guten Morgen”이라는 작은 텍스트가 독일어 언어공동체에 존재한다. 그러나 루마니아어를 제외한 로만스어 공동체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끝으로 번역은 명칭뿐만 아니라 의의에 관계한다. 그러나 의의의 대비문법은, 이것이 전적으로 언어적으로 표현되어 지고 개별언어적인 그 정도에서는 존재할 수 있으나, 의의가 언어외적인 수단을 통해서 내지는 언어자체의 비 명칭적인 기능의 도움으로 중재되어지는 정도에서 존재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상이한 공동체내에는 상이한 의의의 유추적인 명칭들을 표현할 수 있는 데, 그것으로 번역에 대해서 명칭과 의의사이에 모순이 생겨날 수 있다. 동일한 문화테두리내에서(예. 서유럽에서) 흔히 동일한 명칭이 동일한 의의를 중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번역의 출발어와 목표어가 극단적으로 상이한 문화세계에 속한다면 이것은 달리 처신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명칭과 의의 사이의 모순의 수는 많아 번역자는 자주 명칭을 위할 것인가 혹은 의의를 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 어떤 대비문법도 그 번역자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대비텍스트언어학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번역학으로서 대비언어학은, 텍스트속에서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외적인 수단 —“사물지식”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곳에서 대비언어학의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언어외

27. 이에대한 자세한 언급을 E. Coseriu는 1978b, 218ff.에서 하고있다.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표현하듯이 번역할 수 없다. 사람들은 사물의 지식을 확실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모든 언어를 가지고 알려지지 않은 “사물들”을 기술할 수 있으며 그로서 그것들을 알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시 기술자체에 토대를 두고 있는 문화태두리와 연관을 가진다. 예를 들어 낯선 사태의 기술이 완전히 다른 문화세계의 관점에서 시도 되어 진다면, 그 기술은 풍자화가 되어질 위험에 쉽게 직면할 것이다.

4. 대비분석을 통한 번역문제

본 장에서는 이제까지 다루어진 대비언어학과 번역문제를 좀 더 구체적인 실제문제를 가지고 고찰해보려고 시도했다. 대비언어학의 방법론이나 성능을 위한 실제보기들은 대비언어들의 소리영역(Lautbereich)과 형태론적인 영역(Morphologischer Bereich)이다. 주지하는 대로 이 중에서도 대비언어학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 음성학적 영역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이 있는 번역문제와 연관시킬 때 어휘적영역을 선택하여 낱말(Wort)²⁸⁾, 문장(Satz), 텍스트(Text)의 수준에서 독일어와 한국어의 대비분석을 하여 독일어를 출발어로 하여 목표어인 한국어로 옮길 때 문제들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 때 영어가 제3의 대비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낱말번역은 문장이나 텍스트에서 되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장이나 텍스트에서도 경우에 따라서 낱말들의 번역이 불가능하게 되는 때도 있다. W. Koller는 예를 들어 말하기를 Nietzsche의 “Jenseits von Gut und Böse”의 텍스트에서 영어번역자는 독어 Geist를 spirit로 번역하면서 이 낱말을 영어로 번역할 때 어려움을 말했다고 했다. 즉, 이 낱말이 하나의 영어단어로 완전히 옮겨질 수 없는 낱말이라는 것이다. Geister는 마음, 지능, 지성, 사고능력을 의미하고 ‘신체’에 대립하는 ‘영혼’을 말하며(그래서 올바른 맥락에서 ‘ghost’를 뜻한다), 더 넓게 말해서, ‘인간정신’의 개념에 포함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다.²⁹⁾

더 나가서 이러한 문제는 동일 언어내의 역사적인 구분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데, 신고지독어와 중고지독어에서의 경우이다. 이것에 대해서 W. Koller가 인용한 P. Wapnewski의 설명가운데서 arbeit를 <Arbeit>와 klein을 <klein>과 not를 <Not>와 ere를 <Ehre>와 veige를 <feige>와 muot를 <Mut>와 일치시키는 것은 틀린것 이라고 했다.³⁰⁾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유럽언어들 사이의 불일치를 소위 “falsche Freunde”라는 현상으로 표시하는

28. 여기서 낱말은 어휘소(Lexem)와 구별되어야한다. 어휘소는 어휘적인 개념을 가지는 낱말로서 명사, 동사, 형용사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다른 낱말들은 모두 텍스트제약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어휘적 연구를 위해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9.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번역본(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송실대출판부 1990, S. 64이하참고.

30. W. Koller, 상계서 S. 65.

데, 이것이 번역자에게 “함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W. Koller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불어		독어
solide		solid
visage		Visage
Tempérament		Temperament
영어		독어
linguist	≠	Linguist
actually		aktuell
bride		Braut
독어		스페인어
Blance		blance
Benzin		bencina
Akademiker		acadéemico

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등에 따른 어법의 배경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이한 언어들의 낱말내 용이 일치하지 않는 일이 민족학자와 민족문헌의 번역가들에게 언급되고 있는 데, 특히 트로브리안트 /영국령 뉴기니아 원주민에게 적용되는 모계적 사회질서와 관련하여 B. Malinowski는 ‘아버지’라는 낱말은 ‘tama’로 쓰고 법률적, 도덕적, 생물학적 의미로 파악되지 않고 오직 사회적 의미만을 지닌다고 했다.

다시 “falsche Freunde”에 대한 낱말대비의 보기를 들어 이들의 의미적인 자질을 비교해 보고 우리 말의 해당하는 낱말과 대비하여 번역을 위한 결론을 얻어 보고자 한다. K. Rein의 독어 suchen과 영어 seek 그리고 독어 finden과 영어 find를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외형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론적인 자질에서 차이가 있는 “falsche Freunde”로 간주되어 번역자에게 역시 함정을 보여주고 있다.

³¹⁾ 우리가 여기에 한국어의 해당하는 낱말 ‘찾다’와 ‘발견하다’를 대비할 때, 특히 ‘발견하다’는 독일어의 ‘finden’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만 영어 ‘find’와는 한가지 자질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게된다. K. Rein은 독일어 ‘finden’에서는 ‘의도된’/‘노력된’이라는 자질이 결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자질을 한국어 ‘발견하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다. 일반적으로 독일어 낱말 ‘finden’에 속하는 ‘유연성’이 영어에는 없다. ‘의도된 노력’의 자질을 영어는 가지고 있다. 의도적인 가정된 의미내용을 통해서 ‘-계속적인 움직임’이라는 자질을 통해서 내지 집중의 점차적인 구별을 통해서 분

31. K. Rein, Einführung in die kontrastive Linguistik, Darmstadt 1983, S. 70.

리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finden' 동사는 영어 'seek'와 독일어 'suchen'에 접근되어진다. 간접 가능성과 그로인한 오류가능성은 개별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독일어 동사 'finden'의 협소한 의미론은 독일학생들 뿐만 아니라 아마도 영국학생들에 대해서 간접이 간과되어질 수 없다. 독일학생은 독일어에서 자기 모국어의 관용에 유추해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오류통계에 따르면 결코 드문 일은 아니다): 관용적으로 말하는 대신 "Finden Sie mir doch bitte einen Stuhl!" 그러나 영국학생에게는 오류전위 때문에 'besorgen, organisieren, suchen...'같은 가까이할 수 있는 양자태일이 없다. 독일학생은 그것에 대해서, 영어에서는 타동사로 사용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Seek me a chair!'와 같은 종류에서 축어적인 번역이 허용되지 않는 'suchen'의 제한된 도달범위를 고려했을 것이다. 이 경우에 한국어에서 상응어는 'finden'대신에 'seek'에 해당한다.

독어: Finden Sie mir doch bitte einen Stuhl!

→영 어: Seek me a chair!

한국어: 의자 하나 찾아 주시요!

여기서 친족관계에 있는 독일어 'finden'과 영어 'find'의 'falsche Freunde'의 함정을 볼 수 있고 한국어 '찾는다'는 독일어 'finden'에 대비될 수 있으나 독일어 'finden'에서 결여된 자질 '계속적인 움직임', '의도적인'을 포함하고 있다.

같은 친족관계에 있는 독일어 'suchen'과 영어 'see'는 "falsche Freunde"의 함정이 없이 대비될 수 있으며 이들의 상응어로 쓰이는 한국어 '보다'는 더 광범위한 의미범주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sehen'이나 'see'가 표현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무를, 재미를, 시험을, 시장을, 소변을, 손해를, 사위를 보다

이런 표현들에서 '보다'는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다'라는 총체의미(Gesamtbedeutung)에서 출발한 전의된 뜻으로 독일어나 영어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위해서 완전히 다른 낱말을 써야한다.

- 집을 보다 - das Haus hüten

- 용무를 보다 - ein Geschäft besorgen

- 음료수를 맛 보다 - das Getränke probieren

- 운명을 보다 - das Schicksal voraussagen

- 서류를 보다 - die Papiere untersuchen

- 시장을 보다 - Besorgungen machen

그 때문에 독일어문장 Die Mutter hütet ganzen Tag des Hauses에서 hüten 동사를 한국어로 옮긴다면 그 동사는 '보다' 외에 '감시하다', '지키다', '망보다', '경계(조심)하다' 등과 같은 선택의 가능성을 가진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낱말들을 포함해서 'sehen', 'see', '보다'는 '눈으로', '대상물', '방향',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계속적'이라는 의미론적인 자질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낱말 '보다'의 전의적인 뜻에서 'sehen'과 'see'와의 대비는 낱말수준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어와 독일어같은 친족어사이에서도 “falsche Freunde”라는 대비의 장애적인 조건이 간섭과 오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전혀 친족관계가 없는 한국어와의 대비는 낱말의 수준(형태론적인 유추의 수준)이 아닌 문장 내지는 텍스트의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휘영역에서 K. Rein은 언어수업을 세 가지 방법론적인 단계 혹은 학습과 교습단계에서 언급하고 있다.³²⁾ 그 중에서 두 번째가 대비하는 두 언어의 낱말의 의미론적인 자질에 따른 분석을 통해서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부분적인 차이(Abweichung)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가 사용한 자질들외에 몇 가지 자질을 더 추가했고 한국어 ‘울다’를 대비시켰다.

어 휘 소	to cry	to weep	weinen	울다
의미자질				
눈물을 흘리며	+	+	+	+
걱정으로	+	+	+	+
분해서	+	-	-	+
두려워서	+	-	+	+
큰 소리로	+	-	-	+
기뻐서	-	+	+	+

한국어의 ‘울다’는 영어와 독어가 가지는 모든 의미자질을 가질뿐만 아니라 ‘보다’와 마찬가지로 다른 두 언어의 낱말에서 표현할 수 없는 ‘(도배, 장판등)울다’, ‘(종, 천등)울다’ 등과 같은 전의적인 의미를 가진다. 독어에서 ‘weinen’은 울음의 일반적인 표현을 위해서 사용하지만 큰 소리로 우는 것 보다는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것에 강조하고 있어 영어 ‘weep’와 상응하는 것을 보게되고 영어 ‘cry’는 가장 특징적인 의미적인 자질로서 ‘큰 소리로’를 가지는데, 이런 경우 독어에서는 ‘greinen’, ‘plären’ 등 이러한 자질이 내포된 어휘소를 사용해야 할것이고 한국어의 경우는 ‘울다’ 동사와 함께 또 다른 부사들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큰 소리로 울다’, ‘호느껴 울다’ 등을 사용할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weinen’, ‘weep’의 자질을 위해서 한국어에서는 ‘호느껴’, ‘어깨를 들먹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등을 ‘울다’와 함께 사용할 것이다.

독일어와 영어를 출발어로 해서 한국어를 목표어로 하는 번역자는 이러한 어휘소들이 가지는 의미적인 자질에 유의해야 할 것이며, 외국어 습득자도 마찬가지로일것이다. K. Rein은 Karcher의 논문 “Kontrastive Unterrichtsmethoden – Verfahren zur Optimierung der Bedeutungsvermittlung”을 의지해서 학생들의 이러한 조작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했다.³³⁾ Karcher의 견해와 일치해서 K. Rein은 이러한 체

32. K. Rein, Einführung in die kontrastive Linguistik, S. 121.

33. K. Rein, Einführung in die kontrastive Linguistik, S. 122.

계적인 낱말분화를 통해서 어떤 “교수법적인 외국어사전”(ein didaktisches Fremdsprachenwörterbuch)을 언급했는데, 이러한 대비사전은 외국어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번역자를 위한 편람으로도 매우 유익할 것이며, 특히 번역종사자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대비분석작업을 실천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K. Rein은 제안된 대비사전”을 위한 기본요청을 다음과 같이하고 있다.³⁴⁾

1. 빈도수 뿐만아니라 의사소통효과에 따라 선발되어진 200~300개의 기본어휘
2. 동일성-큰차이-작은차이-큰 유사성과 같은 서열이 제안되어지는 “대비-유형”(Kontrast-Typen)에 따른 배치
3. 언어학적으로 적게 혹은 전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교사,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기법

이렇게 구성된 “대비사전”은 해당언어의 습득자에게 기본어휘의 대비를 통한 정확한 의미뿐만 아니라 용법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더나가 번역자들에게는 기본어휘의 대비분석을 기초로해서 더 많은 어휘들의 분석능력을 언어 번역작업에 효과를 줄것으로 기대한다.

결 론

본 논문에서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이라는 두 분과를 대립시키면서 상호긴밀한 관계를 찾아내어. 두 분야가 서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에 이르는 여러가지 이론과 실재를 토론해 보았다.

특히 4장에서 다루어 본 대비분석의 실제문제에서도 어휘의 수준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문장과 텍스트에 이르는 의의의 수준에서 대비되는 상응을 찾아야될 것을 보여주었다. E. Coseriu의 말과 같이 대비언어학이 개별언어적인 구조만을 대비하는 한, 대비언어학은 최상의 경우 번역을 위한 다만 보조 학문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대비언어학 뿐만 아니라 번역학에서도 형태론적인 대비의 수준을 탈피해서 의미자질에 의한 의미분석과 문장이나 텍스트수준에서 중요시되어지는 의의와 언어규범에서 대비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대비언어학이 그 시초에서 보여주듯이 언어교습적인 단계에서 탈피해서 구조언어학과 손을 잡아야 될것이며 여러가지 응용언어학 -예를들면, 화용언어학, 사회언어학, 번역학 등-과 상호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비언어학과 번역학에서, 위에서 언급된 대비분석에 따라 기술되어진 대비사전은 외국어습득자와 번역종사자에게 필수적이며 이러한 텍스트수준에서 대비의 방법은 외국어 정복을 위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34. K. Rein, Ebenda, S. 122.

참 고 문 헌

- E. Coseriu, "Kontrastive Linguistik und Übersetzung: ihr Verhältnis zueinander", in: Kontrastive Linguistik und Übersetzungswissenschaft. Akten des Internationalen Kolloquiums, Hrsg., Wolfgang Kühlwein, Gisela Thome, Wolfram Wilss/Saarbrücken 25.~30. 1978. München 1981, S. 183~199.
- _____, "Über Leistung und Grenzen der kontrastiven Linguistik", in: Reader zur kontrastiven Linguistik. Frankfurt/a. M. 1972.
- W. Koller,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 Heidelberg/Wiesbaden, 1987. 한국어번역판 : 박용삼 옮김.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숭실대학 출판부 1990.
- Herbert L. Kufner, Kontrastive Phonologie Deutsch-Englisch, Stuttgart 1971. 한국어번역판 : 임환재 옮김, 대비음운론 - 독일어와 영어를 중심으로, 서울 1987.
- R. Lado, Linguistics Across Cultures, Michigan 1957.
- G. Nickel, "Kontrastive Linguistik", in: H. P. Althaus/H. E. Wiegand, Hrsg., Lexikon der Germanistischen Linguistik, Tübingen, 1980, S. 462~469(2. Aufl., S. 633~636).
- H. Rabe, "Zum Verhältnis von kontrastiver Grammatik und Übersetzung", in: Reader zur kontrastiven Linguistik, Frankfurt/a. M. 1972, S. 59~74.
- K. Rein, Einführung in die kontrastive Linguistik, Darmstadt 1983.
- K. H. Wagner, "Kontrastive Linguistik", in: H. L. Arnold/V. Sinemus, Hrsg., Grundzüge der Literatur- und Sprachwissenschaft.
Bd. 2: Sprachwissenschaft, München 1974, S. 370~386.
- _____, "Probleme der kontrastiven Sprachwissenschaft", in: Sprache im technischen Zeitalter, 32, S. 305~326.